

[워크샵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오경미: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미루하고 저는 이거 안 본 사람 정말 후회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획했어요. 정말 다들 후회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없다.

-이승현: 미루님 그리고 저는 주로 요청하신 게 트랜스 포비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였었죠?

-사회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이승현: 시작하면 전체공개가 되는 거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죠?

-사회자: 없습니다.

1시간 반하는데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무국 준비 됐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 되는 세션이고요.

인터넷은 여성해방의 수단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연대를 확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존재하며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온라인은 누구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배제는 더욱 가혹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사이버 공간의 안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타자를 배제하고 소수자를 비난하고 차별하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왔는지 사회적 소수자에게 인터넷은 어떤 공간인지 되묻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안전한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먼저 '주홍빛 연대 차차'의 워비 활동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온뒤 무지개 재단 이승현 이사장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혐오차별 대응단의 오영택 사무관님 같이 계십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님 이따가 접속하셔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기조 발제 듣고 각각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공동기획을 같이 하시기로 한 오경미 연구원님이십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오경미: 안녕하세요, 연구원 오경미입니다.

기조 발제까지는 아니고 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입니다.

인터넷은 마치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서로 연결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안전을 추구했던 시절이 한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지금은 퇴색되었을지라도 인터넷의 미덕은 접속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젠더의 구분 없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젠더로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기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방의 공간이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갖춘 익명성의 미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도구로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채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생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과 노동권을 외쳤습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한 악의적인 00녀 시리즈 등 우리 사회와 인터넷 공간에서 넘쳐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적대에도 맞서 싸워왔습니다. 미러링을 통해 적대적인 혐오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여성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여성들과도 연대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해시태그 운동은 전 지구적 규모의 여성이 인권 향상과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대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막강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의 해방과 연대는 아주 협소하고 배타적인 범주의 '여성'을 위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을 없애고 성적 대상화를 거부한다는 이유와 '여성'의 품격을 평가절하시킨다는 이유를 근거로 인터넷 상에서 성, 섹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터부시되거나 심지어는 적대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잣대로 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비난, 혐오, 적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타적인 권리 주장은 현실 세계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으로 드러나는 등 높은 파급력으로 충격을 되먹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성노동자 등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수위 높은 낙인과 배제가 그 결과일 것입니다.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절대적일 수도 없고, 가치중립적이지도 않은 기준은 공격과 비난을 받아도 될 대상과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사회가 비난하고 꺼리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무수한 맥락은 단지 전체 여성의 가치 저하라는 추상적이지만 절대적인 명제로 빨려들어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n번방 피해자에게 책임을 되물었던 일부 여론은 음란과 성폭력의 구분을 우리 사회가 한사코 거부했던 결과일 테지만, 여성 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실천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 금지라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변방의 목소리로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여성'의 해방과 연대는 '여성'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속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사라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인 듯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존재의 삭제를 요구해도 되는 정당한 권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꿈꿨던 인터넷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도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해방과 연대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의 미덕과 가치가 빛바랜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은 되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 보호와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선별적인 특권인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해방과 연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성'의 연대에서 배척되었던 소수자들이 경험했던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배제의 경험들을 들어보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인터넷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 발제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 싸워왔지만 그 결과가 과연 소수자 배제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는 말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혐오와 배제의 현실이 어떠한지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비온뒤 무지개 재단 이승현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고 싶습니다.

-이승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인데. 연대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현상적인 측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해지는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2007년, 2008년 차별금지법안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 반동성애 운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점점 확대해가고 훨씬 조직화되어가고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현상들 안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주로 쓰다가 성소수자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쓰게 됐지만 초기에는 성소수자 단어를 쓰면서도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트랜스젠더는 바이섹슈얼까지 포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이야기가 되어서 왔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 죄송합니다. 카톡 소리 안 들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성소수자 인권운동 안에서 트랜스젠더가 목소리를 조금씩 목소리를 내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가시화된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위한 운동들, 2008년에 운동이 있었을 때 당시 성별정체성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트랜스젠더 운동의 어떤 초기, 시발점?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소수자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성소수자가 있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왔었던 것들을 확장하는 작업들이 있어왔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이야기를 하면서 몇가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최근에 숙명여대 사건 좀 이전으로 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2년 전이었죠? 2018년에 이 불법촬영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반대하는 어떤 대

규모 시위들이 1차, 2차가 짝 이어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때에 생물학적인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고 집회측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일정부분 트랜스젠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안에 포섭되기 힘든 그러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뭐랄까요 .. 문제제기를 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불법촬영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범주라고 하는데서 생물학적인 여성이면서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결국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간의 연대. 이러한 지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지점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트위터 상에 굉장히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차별금지법 2008년대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지점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 결국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어떤 단일한 집단?

혹은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나오는 것을 통해가지고 연대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대요.

그때 많은 트위터 상의 공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명하게 올해 초에 숙명여대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한 했었죠.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한 이 부분은 현재 한국에서는 성별정정을 성을 변경하고 신분증상 성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해라. 라는 거대요. 아시다시피 모든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수술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어쨌든간에 그러한 엄격한 요건을 쉽게 클리어를 하고 성별정정을 했던 트랜스젠더 여성분이었고. 그래서 입학이 결정이 됐었는데. 본인의 특별한 자의라기보다는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기사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대학 내부 게시판에서 굉장히 큰 공격들, 비방이라든가, 비하 더 나아가서 입학하면 어떻게 찾아내겠다. 어떻게 폭행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대응을 하기 위한 TF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입학자 분은 그냥 입학 포기를 하셨습니다. 포기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상태에서 입학한다고 해서 누가 찾아낼 수는 없죠. 입학한 했을 때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등등으로 결국은 입학포기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있었습니

다. 이러한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이야기한 차별금지법부터 쪽 시작이 됐었던 소위 반동성애 단체들의 혐오표현에 트랜스젠더는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어떨 때는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개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포함되거나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할 때 이전에 의학적인 시선에서 봤었던 의학적인 접근을 했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어떤 접근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적인? 불쌍한? 존재로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원지 잘 모르시는 분이나. 이런 식이다보니까 사실은 반동성단체 내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없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떤 일부의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사실 이런 공격들을 보면 생물학적 성별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염색체를 봐야 된다고나 혹은 이 안에서 결국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하게 트랜스젠더 남성은 무엇이냐? 했을 때 양가적인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성적인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거나. 여성의 사회적인 차별 안에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험자체가 배제되는 거죠. 경험 자체가 삭제된 상태에서 생물학적인 성별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법원에서 트랜스젠더를 보던 시각하고 되게 비슷하기는 한데요. 여튼간에 이런 어떤 현상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다니죠, 인터넷상에. 트랜스 뭐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자라고 생각해서 남자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고양이니까 트랜스 고양이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유행처럼 많이 퍼져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이해할 때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인 성별이 다르다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오류가 있는 그러한 과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그게 그대로 전이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조롱하는 글들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 특히 SNS, 트위터 등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는 굉장히 복합적인 맥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예 비가시화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배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홍빛 연대 차차의 워비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워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홍빛 연대 차차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워비라고 합니다.

주홍빛 연대 차차는 성노동자를 위해 차별과 낙인을 차근차근 없애 나가기 위한 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성노동자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이며 성노동자의 건강권, 주거권, 재생산권, 평등권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유흥업소, 영업정지가 시작되었는데요. 룸은 문을 닫았고, 노래방은 불을 꺼놓거나 영업정지를 붙여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1종 가게는 모두 닫았고 단란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2종 가게는 오픈을 하고 있어 2종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살벌한 분위기라 아가씨나 손님이 오면 가게주인들은 문을 열어줬고 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손님이 확 줄어들어서 애프터를 2~3개 보던 언니들은 이제 하루에 겨우 애프터 1개 볼까말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에만 있던 언니들

도 있었어요.

저 역시 돈을 얼마 못벌고 집에 갔습니다.

보도실장은 언니들이 안타깝다면서 일부 언니들과 저에게 테이블로 돈 얼마 못 버니까 애프터도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 관계 위주의 업종을 뛰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서 소개를 시켜준다면서요.

저는 실장의 권유에 따라 기타 업종으로 갔습니다. 업종을 옮기고 지명 손님이 생겼습니다. 실장은 자기가 콜을 잡아주지 않아도 출근하면 예약이 다 차 있게 하라고, 그래야 앞으로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실장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저도 일할 때 차별받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자칫하다 실장 눈밖에 나게 되면 저는 일하다 진상손님만 받아주는 언니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새롭게 문의를 하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동시에 경찰이 저희 동네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단속에 걸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 손님보다는 계속 얼굴을 몇 번 본 손님을 만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었다.

일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지명 손님이 바로 생겨서 좋았습니다.

목을 조르기 전 까지는요. 그 손님은 어느 순간부터 사정을 하기 전에 제 목을 졸랐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된 게 아니었고 관계가 끝난 후 모두도 그 행위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

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지명손님을 보러 갔습니다.

손님 몸을 어루어만지며 오빠 좋아? 하고 웃던 제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내려가고 몸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목을 졸리지 않고 끝나나 했는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강간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영혼을 박살내로 나를 끝장내는 끔찍한 일 따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강내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일이거든요. 슬프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지만 죽고 싶었습니다.

트위터에 강간을 당해서 죽고 싶다는 글을 썼어요. 단순히 휘발되는 생각과 감정을 묶어내기 위해 올렸던 글은 예상과는 다르게 제 안에서 휘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강간당했다는 게시글은 어떤 트위터 유저가 무단으로 캡처해가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다, 성매매로 돈 못 번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원한다면 절대 발들이지 마세요.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했고 그 트윗을 동의하는 사람은 몇 백명이 넘어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고 난 후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성폭력 2차 가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가 불법적인 일을 하다 겪은 건데 서로 돈내고 합의한 거니 네가 당한 것은 강간이 아니다. 너도 성노동 운동을 하는 포주니까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다. 손님을 신고해라. 왜 못하냐. 당당하다며. 사실 손님이 네 돈줄이라 신고 못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유저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이것은 명백한 성폭행 2차 가해이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저에게 사과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건 성폭력 2차 가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합당한 조언이며 사실 맞는 말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설전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제가 하는 운동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노동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성노동자 권리 운동을 해온 저에게 포주라는 라벨을 붙여서 여성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어서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를 고발한 이 상황에서도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도 사람들에게 제 성폭력 피해사실 유포 사건이 성폭력 2차 가해가 아니라며 성폭력을 묵인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 문제제기를 하니 어떤 사람들은 단체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공로를 저에게 말하며 대의를 위해 단체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작성하고 동의를 한 트위터 유저 대부분이 반성폭력, 반성매매에 동의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반성폭력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어째서 성폭력 피해를 토로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매매는 돈을 못 번다고 했잖아. 성매매 절대 받들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페미니즘 운동에서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문제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동안 성매매는 단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문란하고 타락한 여성이라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조화된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축소시키고 문제제기를 은폐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지난하게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개인이 받을 들여서 시작하게 된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기만하는 행위와 같아요.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해 경험을 조각조각 내어 반성매매 프로파간다에 맞게 입맛대로 활용 하는 것은 반성매매 운동이 아니라 성매매를 경험한 당사자를 무시하고 자신과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태도입니다.

직장내 성폭력을 증언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그 일은 돈 못 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피해자를 알잡아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것. 불특정 다수 앞에서 여러분 거봐요 애 이런 일 하다가 성폭력 당했어요. 여러분 이 일 하지 마세요 라며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가 어떻게 페미니즘 운동으로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반성폭력과 반성매매 운동에 반하는 행동을, 페미니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종종 성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나 감정, 생각 따위를 글로 적어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고 예전처럼 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퍼날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재현시키고, 성매매 했으니까 성폭력 당했잖아. 그러니까 성노동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성노동 운동이 폄하되고, 큰 상처였습니다.

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두 부정당했습니다.

어떤 운동에서도 활동가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활동가가 해 오던 운동이 폄하되거나 운동의 담론 자체가 부정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노동 운동은 그랬습니다.

제가 성폭력을 당하면 성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피해강간이고 곧 성착취라는 슬로건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노동자의 성폭력경험은 말해 질 수 없었습니다.

성노동론을 지지하며 성노동자 권리운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주의 운동내에서 연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노동자는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해야만 하거든요. 성노동자의 언어를 탈취하는 게 주변화의 전략입니다.

남성사회에서 성노동자는 문란하게 몸을 팔아 쉽게 돈을 버는 범죄자입니다. 여성주의운동 안에서는 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이지요. 어느 곳에 가도 성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는 존중받거나 언어를 가진 주체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되지 못한 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 말하기는 누군가를 거쳐서야만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끝없이 대상화 당하고 조롱당하는 존재로서 담론장에 존재하는 것이예요. 어느 곳에서도 저의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두려움 과 절박함이 더 안전한 공간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디지털 공간에서 익명의 힘을 빌려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디지털 공간 또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불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무심코 특 별은 말들이 한 두명이 한 게 아닐 때, 눈덩이처럼 쌓일 때도 불링이 됩니다.

불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이버 불링을 했다는 자각조차 없는 채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이버 불링을 경험하는 순간, 오프라인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처입은 사람은 있지만 상처입힌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페미니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웹페미니즘의 모습입니다. 특정 의견을 피력했다는 논쟁거리에 대해 다수의 다른 의견에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웹페미니즘에서 사이버 불링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까지 여성주의활동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이버불링을 겪었습니다.

특히 같은 페미니스트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이 경험이 죽을 만큼 힘들었고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들었고 여성주의 운동에 두려움이 생기게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지속되는 웹페미니즘 사이버 불링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오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저에게 반문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사이버불링은 피해자는 특징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는 모호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계정을 폭파거나 게시물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온라인 공간에서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입은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고 행복해 하던 곳에서 떠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시간과 공간과 기억에서 떠나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막상 사이버 불링을 경험하게 되면 떠나는 사람은 제 자신이 됩니다.

일상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저의 소중한 공간을 버려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제가 왜?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째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 조차 모호하고 자신의 가해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과

연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공간에서 소수자가 자신을 말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논의를 제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너무 가슴 절절한 말들이었던 것 같아서 먹먹해지는 감도 있는데요. 사실 성노동의 문제는 페미니즘계에서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어느것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아직 더 논쟁이 되어야 하는 주제만큼 오늘의 주제에 매우 적합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시기는 하셨는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위티의 양지혜님 지금 접속하셨는데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봐요. 일단 양지혜님 숨 돌리시는 동안 오영택 사무관님께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택: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대응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는 오영택입니다.

인터넷 공간의 안전과 포럼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공간은 이용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보장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라는 질문을 접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는 안전하지 않고 배제와 차별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이어서 발표하실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당사자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포와 위험을 야기하고 안전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공론의 장인 인터넷에서 무력화시키고 결국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몇 차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의 90% 이상, 여성의 80% 이상이 온라인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0% 정도의 응답자가 범죄로 이어지거나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혐오표현이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적 약자 집단과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진정사건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장애인에 비하하는 정치인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진정이 여러 건 진정되었지만 위원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단자체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고, 해당 결정문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에 인권위원회가 국회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평등법 시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시안에는 그때 한 괴롭힘 유형 중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 향후 정부의 기준이 되고 인권위원회도 혐오표현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혐오 표현에 대한 조사권이 명확하게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오표현 관련된 진정이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는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혐오표현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현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인권위에서 처리하는 차별사건의 일부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용제한, 흑인 등 외국인에 대한 고용차별 등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적극 알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사회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서 작년 1월에 혐오차별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기획단은 지난해에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과 대응 방안을 담은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혐오표현 리포트를 통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고는 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1월에 언론 미디어 단체들과 혐오표현 실천선언을 하고 7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이 줄어드는데 이 실천선언이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 공동체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실천 메뉴얼, 안내서 등을 공동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각종 대응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등 자율적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홍보 자료를 보급하고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개별 부서에서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저희 기획단에서 포괄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포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등에 대한 의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태조사가 나오면 정책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우선 혐오표현의 정의와 규제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정확히 제시하고 정부가 혐오표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 사회 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구체화해서 정부의 대응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안전과 관련해서 온라인 포털 기업이 가지는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불법 온라인 콘텐츠 삭제 의무화 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 교육,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작년 10월 UN에 보고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UN GP 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을 하라는 것입니다.

투명성은 이러한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이런 역할을 인식한다면 이용자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대항 표현 활동 지원 등 온라인 혐오표현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이 누구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발제에서 이따가 나눌 이야기까지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한번으로 안전과 그 대안에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꺼번에 다 발제해 주신 것 같아서 내용이 아주 알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접속을 하셨습니다.

양지혜 활동가님 오셨고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양지혜: 안녕하세요.

위티의 양지혜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아무튼 이번에 간담을 제안해 주시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이나 페미니즘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이 처음이라서 간담회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서툴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같이 새로운 고민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발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여성청소년에게 인터넷은 어떤 공간일까? 라는 저의 고민을 공유드리려고 하고, 논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등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 청소년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짚어볼 때 지금의 청소년들은 정보화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했던 이들이고, 기초적인 감각이 인터넷 기반에서 구성되어 있던 이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대 유튜브와 같이 청소년에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정보 획득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온라인 공간 얘기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소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스쿨미투 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것이 스쿨미투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서 발제해 주신 해시태그 페미니즘 운동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상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명확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만들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쿨미투 운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형성되고 적극적인 운동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좀 개별학교에서 쌓아온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축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운동자체의 부피는 커졌지만 막상 학생들이 외롭게 싸워야 할 현실들도 분명히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인터넷이 어떤 공간이나? 사실 두 번째 측면에서 여성청소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김혜란 연구자님의 논문을 참고해서 저도 고민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청소년 관계맺음이라는 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매개로 하고 있고 SNS를 하지 않았을 때 또래 내부의 문화를 공유하거나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SNS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또래 관계에서 여학생에게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김혜란 연구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은 소셜미디어 인구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용자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정보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디지털 경제이고, 내가 여행정보 검색하면 페이스북에 여행 광고 뜨고 이러한 매커니즘의 디지털 경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사실 스스로의 몸을 전시하고 상품화 하는 방식으로 정보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이 여성청소년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패션이나 뷰티 산업들과 연결시키는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여성청소년을 이용하는 방식은 성적 매력을 가진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이 인터넷 시장에 적극적인 소비 주체이자 생산자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소녀성 이라는 사회의 규정이 미성년 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 했던 것들이 불투명해 지고 여성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상품화 하는 공간으로서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소녀성 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기로 여겨져왔던 것들에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는 해방적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이 생겼다는 느끼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청소년 들이 이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소셜미디어 산업에서 평가받는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의 특성, 전파성이 강하다거나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다거나 이러한 것 때문에 착취와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들, 착취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바깥에 여성청소년이 실제로 권리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비주체 여성청소년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아이돌 산업은 점점 더 젊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해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여성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인터넷이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이런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황의 문제들이나 폭력적인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언제나 그 상황들과 청소년을 격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로서 해결하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권장하고 발달하는 과정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고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형성된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 매체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해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조항으로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이나 인터넷 내부에서 청소년을 격리하는 방식,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기보다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문화로부터 청소년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가 섀다운제라든가 부모가 청소년 핸드폰을 관리할 수 있고, 원할 때 인터넷 접속을 끌 수 있는 유해 매체 관리 어플이라든가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규제가 저는 2가지 점에서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로는 청소년은 인터넷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필요성이 없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로는 무엇이 유해하고, 무엇이 차별이나? 라는 논제를 뒤로 밀어놓고 연령을 기준으로 편의적으로 나누고 있던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를테면 최근에 기안84의 웹툰이 논란이 되었는데, 네이버에 웹툰 관리지침을 찾아보니 차별표현이나 혐오표현 어떤 제한도 없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하면 끝이다. 라는 발상이 청소년에 대한 통제로도 이어지지만 청소년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청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럴 때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으로써 청소년을 인터넷 문화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의 전반적인 혐오와 배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N번방 사건 이후에 좀 고민들로 넘어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N번방 사건에서 저희단체에서 가장 주목했었던 것은 왜 여성 청소년이 일탈계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냐 라는 것이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일탈계를 한 여성청소년들이 N번방 피해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음란한 여성 문 제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여성청소년에게 성적 실천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일탈계만 가능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청소년은 다른 여성들과 비슷하게 예뻐야 하죠. 다이어트나 적당한 화장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순결하고 성에 대해 잘 모르는 존재여야 한다고 사회적 규범도 남아있죠. 순결하다는 이미지가 여성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잖아요. 어리다, 순결하다, 아직 섹스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희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취하고 싶어진다, 이런 것들이 미소

년 판타지 중에 하나인데, 여성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로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대부분 박탈되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의존하지 않거나 생존하기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이 성을 거래 수단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해 발화 할 수 없었던 현실, 아동 청소년이 성을 거래해서 비청소년에서 의존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위치, 여러 사회적 경제적 위치, N번방 이후에 사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이 성적 괴락에 대해 발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사실 모호하죠.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뉴스부터 19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청소년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엇으로부터 보호할 것인지는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에 대한 배제와 그들의 성적 욕망에 대한 배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쟁점을 마쳤고요. 참석자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Q&A 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혐오와 배제가 사라진 클리어 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혐오, 배제, 차별이 없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꿈의 나라인 이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꿈 같은 안전이 아니라 현실 같은 안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단순히 안전을 넘어서 안전이후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자분들은 5분 정도씩 예상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승현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현: 내용상으로 제가 뒤에 하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으신거죠?

-이승현: 마무리발언보다는 주로 앞서서 다른 분들 발표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더 했었어야 하는구나. 더 알 것 같은데. 사실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차라리 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자: 그럼 뒤로 보내드려야죠. 그러면 먼저 옥비 활동가님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옥비: 앞서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나타난 여성주의 운동의 성노동자 2차 가해 사건은 절망스러운 부분도 있는 한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주의 운동내에서는 계속해서 누가 연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상인지 여성주의를 규범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트랜스젠더 부서관 강제 전역 사건과 여대 합격 사항 역시 누가 여성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여성인지, 자격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격이란 누가 어떤 위치에서 부여하는 것인지. 왜 그 자격은 모두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자격이라는 것이 파이싸움처럼 누군가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페미니즘을 멈춰

야 합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페미니즘은 우리가 그동안 싸워오던 기득권 모습이 닳았기 때문이에요. 여성 패싱 구직자는 알바몬에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해놓으면 시급 4만 원 대학 카페 홍보문자가 날라옵니다.

스킨십 없는 대화만 하는 카페라며 한번 면접만 보러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대화 카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여기에서 이 정보를 찾아보고 메시지가 온 번호를 차단하거나 다른 알바를 구하겠지만 누군가는 대화만 하는데 시급 4만 원이 찝찝하기는 하지만 면접을 볼까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트위터에서 일탈계나 조건만남계를 운영하다보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스폰을 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월 몇 회를 만나면 500을 주겠다고 해요. 신빙성 없는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제의가 절박해서 답변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대화 카페 문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면접을 보러가고 왜 누군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흔들리더라도 면접을 보러가지 않을까요? 왜 누군가는 거짓말 같아 보이고 위험한 스폰만남 제의에 답에 응하는 걸까요? 개개인이 마음이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냐의 차이일까요? 개개인이 속과 관계망 속에서 어떤 자원이 부재해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페미니즘에서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같은 노력을 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자격이라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학 카페면접을 보러 가고 스폰만남 제의에 절박함을 보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제의를 거절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타인의 삶에 스며들 수 있게 만들었던 사회적인 장치를 발견해서 그장치를 파괴하고 그 장치를 파괴할 수 있는 발돋움을 만들어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파괴하는 것과 안전을 위한 발돋움을 만드는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연대의 중요성을 여성주의 안에서 외치는 것일 것입니다.

전 여성주의 슬로건 중에 단 한명도 더 잃을 수 없다는 슬로건을 좋아하는데요.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는 것은 단 한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 한명도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파이 싸움이 불러온 배제주의적 페미니즘을 직시하고 여성 주의 지영에서 더 많은 주변화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배제를 통해 단일한 여성들의 페미니즘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꺾고 주변화된 존재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같아요. 사실 이게 누군가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유혹에 약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망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 말이 유독 뇌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양지혜 활동가님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양지혜 님 음소거예요.

-양지혜: 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인터넷 공간, 온라인 공간, 혹은 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규제하거나 혹은 격리해야 될 것으로 여겨져 온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모든 여성, 모든 소수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사람의 관점으로 여성이나 소수자를 바라보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했었던 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매우 자유롭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공간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산업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토론의 주제랑 제가 많이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이 온라인 공간이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한편으로 이 공간이 여성청소년에게 안전하다는 여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했을 때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는 현실에서 여성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는 혹은 여성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에서 사회적인 권리들이 향상될 수 있는 방식들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여성청소년의 성적인 권리나 욕망이나 고민 실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사실 크고 이 5분 발제가 더 어려웠는데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니 여성청소년 권리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거든요. 이것을 인터넷 공간으로 초점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들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정말로 유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하고 만약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면 대부분 모두에게 유해한 것이고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말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이후에 청소년이 성담론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막히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 많은 활동들은 그런 고정된 성담론에서 벗어나서 음란하고 야하고 위험하고 일탈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각으로서의 성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인지 논의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이 안전을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것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승현 이사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이제는? (웃음) 발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네, 이제 이야기할게요.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소수자가 소수자끼리 배제하는 현상인데, 특히 일부 여성운동에서 일단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앞에 발제자 분들도 말했듯이 여성운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여성이 누구인가? 주체이든 아니면 그 운동의 내용이든 간에 여성의 정의, 혹은 여성 운동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너무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기가 하나의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하나의 뭐랄까.. 방법이겠죠? 대응방법이겠죠?

우리가 혐오를 이야기할 때 혐오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로 구분하고 그 구분을 단순하게 집단화해서 뭉쳐서 보는 그런 안에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떨다. 이 사람은 이런 트랜스젠더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한 이미지들? 특히 이러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압축해놓은 거잖아요. 편견이 압축될 수 있는 게 이미지고, 이런 게 인터넷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짤이나 어떤 풍자를 하는 그림. 이런 형태로 많이 돌아다니죠.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의 수염이 있고 남성 그림에 뭔가 흥폭해 보이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서 트랜스젠더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들로 만들어 내는데 이거는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것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일종의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로 박제된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혐오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소위 반동성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매우 유명한 분들이 책을 쓰고 그 책이 법학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이런 책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많은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전제는 동성애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동성애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특이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 부터 논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트랜스젠더 역시도 이 사회에서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사회 내에서 살아왔었던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습득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소위 대상화된,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증명되지 않는. 이러한 과정 안에 있는 사람 혹은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트랜스젠더는 이렇다고 단순화해서 보는 것.

이거는 결국은 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양한 여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연대의 부분이라고 하는 게, 함께 우리가 문제시 해야 되는 것, 대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나 했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집단이 아니라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젠더 규범들, 어떤 차별적인, 차별의 역사를 계속 반복시키는 사람들의 생각들, 사상들이 사실 우리의 공격이나 대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단을 단순화 시켜서 공격하는 그러한 현상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응해야 하는가를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젠더규범이라든가 기존의 차별 경험들을 공통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이 안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그 나중에 판단을 바꾸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관계 하나만 더 포함해서 이야기 하자면 96년도에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는 성매매를 한 여성이었어요. 성매매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호객행위를 하다가 강간을 당한 경우고요. 10년 뒤에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 분은 나이가 지긋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강간죄가 인정이 됐어요.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여성

이 요구하는 순결 혹은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무엇에 대응해야 하는가? 고민 하나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2분안에 끝낼게요. 또 한 가지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공포나 불안감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공포나 불안감이 나 분노 같은 것들을 이것 역시도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집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 문제가 해소되거든요. 원인파악도 쉽고 해결 방법도 간단해요.

예멘난민 사건 때와 같이 난민을 추방화 시켜서 없으면 여성 성폭력이 덜 일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지금 어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단순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혐오,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여성운동이 집결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운동에 화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되는 가부장적인 젠더 규범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 중에서 사실 누가 거기서 조금 더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실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 먼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먼저 가겠다고 했을 때 쉽게 드러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 안전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소외된 주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아서 오든가. 이게 되는 현상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온 젠더규범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가 좀 더 쉬운 소수자간의 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간의 연대가 있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좀 저희끼리 주변 사람들끼리 하는 표현으로는 사안을 납작하게 만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인도 결과도 되게 표면적인 것만 눈에 띄게 만들어놓는. 그래서 사건을 역사적과 맥락적인 것을 빼놓고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안을 납작하게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나왔던 짤 중에 각자 노는 각자 저어 오라는 짤을 봤는데, 그것보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연대 그동안 쌓아온 운동의 역사와 연대의 이야기들을 모두 맥락을 다 지워버리려는 듯한 그런 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짤이 다시 한 번 새삼 떠오르네요. 나중에 알아서 오든가 그 멘트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저의 트라우마를 건드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영택 사무관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5분 안쪽으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택: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혐오표현의 대응에 있어서는 규제의 방식과 연대와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소수자간 연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편견을 담은, 편견이 담고 있는 것들이 혐오표현이라는 것들을 알려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규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러 표현들을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규제하는 방식들은 이게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의 한 방

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에 대한 편견이 담겨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욕설이나 거친 표현 이런 것들도 규제가 되고 있고 미러링과 같은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도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기업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규제 기준들을 마련해내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정책에 반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여러 혐오표현들이 퍼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또다시 연대의 목소리로 혐오표현을 극복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 연대의 메시지가 혐오표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 분이 질문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질문을 다 읽기에는 좀 긴 것 같고, 제가 질문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는 오늘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안전한 소통이 가능한 현존하는 온라인 공간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질문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담은 전반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부재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식 부재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지로 어떤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솔직히 저는 이 질문에 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한 공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나 안전 공간이 있으신 분은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수많은 SNS 채널과 사회관계망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완전히 안전한 온라인 공간은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평평한 공론의 장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자가 대답을 같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교육자 지위를 상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지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활동영역이 제일 오래되실 것 같은 이승현 활동가님께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승현: 사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과 같이 대항 언론을 구성하는 방법도 그렇고 혐오와 확산하지 않는 방법도 그렇고 사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데, 사실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 같은 것도 트랜스젠더 남성하고 여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격도 많거든요. 결국은 알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책인데. 책들 가운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반대편에서 나온 책들이 똑같이 인권의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권리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데 내용물을 보게 되면, 동성간의 그런 어떤 문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가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책을 잘 고르셔야 하는데 도서관도 그렇고 서점도 그렇고 젠더 세션이 전부 다 함께 꽂혀있어요. 서로 면을 마주하고 같이 꽂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책을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들이 지자체들에서 여기저기 혹은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이러한 내용들의 시민 강좌들이 제법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이

해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강좌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네, 사실 관련 강좌도 많고요. 워낙에 인권 영화제나 여성인권 영화제 같은 곳에서도 단순히 하나의 인권이나 하나의 이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솔직히 장애인권영화제를 봐도 장애인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장애인이면서 또 다른 맥락에서의 소수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는 그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와 함께 문화와 함께 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영택 사무관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차별금지법안 평등기본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대상 이외에 사적 공간에서는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혐오표현 규제는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혐오차별 중에서도 적어도 인종주의, 인종차별은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4조에 따라 범죄화해야 할 것을 어떻게 이행해나가야 할까. 어려운 질문 2가지를 오영택 사무관님께 드렸어요. 대답 듣고 마무리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영택: 차별금지법, 평등법 시안에 보면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것들을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것들이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강조하고 교육, 홍보, 캠페인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들을 위원회가 꾸준히 진행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다같이 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혐오표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인종차별 철폐협약에서 각 국가의 인종혐오와 관련된 규율을 할 수 있는 국내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정부가 인종차별과 관련된 규율 법령을 만들어야 할 당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들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성격, 정의를 충분히 담아내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것들을 따라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면서 방안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국가인권위의고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오영택 사무관님도 바빠지시겠죠? (웃음)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것들이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들로만 세미나를 기획해도 1년치가 나올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누는 동안 같이 참석해 주신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엄혹한 시기에 오프라인으로 인사드리고 같이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